

파견기간	2025.02.07. ~2025.07.28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1-15456
파견국가	스위스		소 속	재료공학부
파견대학	EPFL		성 명	김경오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졸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 고민 속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렸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가까운 사람들과 조금의 거리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면에서 반년간 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안성맞춤이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내가 교환을 다녀온 대학은 스위스 로잔의 로잔연방공과대학(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이다. 교환학생을 가게 된 목적이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 위했음이었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나라인 스위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에는 취리히연방공과대학과 로잔연방공과대학이 존재했는데, 평소 수영하는 것과 물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기에 레만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로잔연방공과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두 학교 모두 재료공학부에 다양한 연구실이 존재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공과대학들이었기에 학업적으로는 둘 중 어느 곳을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교환학기를 보낸 로잔은 평화로운 동네이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중심에 가면 백화점과 부티크가 있고, 슈퍼마켓도 곳곳에 있고, 휴식하기 좋은 공원도 많아 살아가기 좋은 도시이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스위스에서, 큰 도시도 아니기에 아시아 식재료나 식당은 선택지의 폭이 좁다. 파견대학인 로잔연방공과대학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인데, 입학이 매우 쉽고 졸업이 어려운 학교이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이다. 과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고, 교수님들 또한 학생과 친근하게 지내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대학이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신청은 스위스 대사관에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비자신청서 3부, 여권 사본 2부, 여권 사진 3장, 입학 허가서 2장, 지급 확인서 2장,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2부, CV 2부, motivation letter 2부, 귀국 서약서 2부, 통장잔고증명서 2부)를 가지고 스위스 대사관에 전화해 인터뷰 날짜를 잡은 다음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면된다.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인터뷰 또한 약 5분에서 10분정도 진행되는 매우 간단한 인터뷰이다. 비자 발급은 2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 11월 말에 신청해 1월 초에 받았다.

2. 숙소 지원 방법

숙소의 경우 FMEL 이라는 학생 숙소를 이용했다. 숙소는 대학 근처에 다양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까운 숙소, 도시 센터에 가까운 숙소 등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숙소의 종류 또한 스튜디오, 싱글룸, 플렛슈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숙소의 종류와 위치, 모양은 FMEL 홈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다. 교환학생의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해둔 이후 신청일에 맞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하는 숙소를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수강신청 하듯이 기다렸다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파견 대학에 지불할 비용은 없었지만, 기숙사의 경우 5 명이서 플렛슈어를 하는(1 인 1 실, 화장실 2 개, 주방 공유) 비용은 한달에 510 프랑으로, 한화 약 85~90 만원(환율에 따라 차이가 꽤 크다) 정도였다. 숙소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의 경우 IS academia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 인원 제한이 없어 기간 내에만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수강 학점에 제한 또한 없었으며(권장 학점은 20~30 credits 이다), 수강 과목들의 시간 overlap 이 있어도, 이후 일정 기한 전에만 드랍을 하면 되어서 수강에는 제한이 없다. 각 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및 is academia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나의 경우 Neuro-x project, Organic electronic materials, Properties of semiconductors and related nanostructures, 총 3 과목을 수강했다. Neuro-x project 의 경우 관심 있었던 연구실이 Neuro-x 대학 소속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학기 중 인턴을 하기 위해 신청을 했다. 학기 중에 출근을 해 연구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보고서 및 발표를 하면 되는 과목이었다. Organic electronic materials 의 경우 과목명 그대로 organic material 의 전기적 확용에 대해 배우는 과목 이었는데, 유기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경우 introduction 형태로 들어보기에 좋은 수업이었다. 중간에 과제가 있고, 마지막 과제 기반 기말고사를 보는 형식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Properties of semiconductors and related nanostructures 의 경우 반도체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중간 과제 한번과 팀프로젝트 후 발표를 통해 성적이 산출되었다.

두 학업 관련된 수업의 경우 모두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수업 내용 또한 흥미로워 재료공학부 학부생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3. 학습 방법

EPFL 의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녹화되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수업 자료와 함께 원하는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효율성을 위해 교실에 가서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영어로 된 수업을 듣기 위해 모든 수업이 석사 수업이었지만, 서울대학교의 학부 수업과 비슷하거나 더 쉬운 난이도였기에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수업 중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헛갈리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석사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의 유러피안 악센트에만 익숙해진다면

수업을 듣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악센트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계속 듣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 잘 출석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영어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대부분의 물품은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부피가 큰 이불과 배게의 경우 FMEL의 Bedding kit를 신청하면 좋은 퀄리티의 것들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대신,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미용용품, 한국어 또는 영어 책(책 값이 비싼 편이고, 대부분 불어책을 판매한다), 식재료(작은 참기름 등의 한국 향신료)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식재료의 경우 취리히나 베른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기차 비용이 많이 들고 훨씬 비싸다. 옷의 경우 자라나 H&M 등의 저가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현지 물가 수준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원 후반 정도의 비용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비싼 편이다. 그나마 중식당의 경우 양이 많고 맛있으며 가격대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추천한다. 하지만, 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는 비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정도이다. 학교 바로 앞, 그리고 기숙사 근처에 migros 같은 장을 볼 수 있는 큰 마트가 많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사의 경우 학교 식당이 비싸지만 맛은 별로 없는 편이라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는 푸드트럭을 많이 이용했다. 은행은 UBS를 이용했는데, 기숙사비를 내거나 도시세 등을 낼 때 유용하기 때문에 학생 계좌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비용도 무료이고 유로 카드, 프랑 카드 두 종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교통은 로잔 시내에 버스와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를 잘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울만큼 많은 노선이나 짧은 배차간격은 아니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또한 추천한다. 레만 호수 옆으로 자전거 길이 잘 나있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학교와 기숙사를 오갈 수 있다. SBB에서 Monthly pass(로잔 시내의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Half fair card(스위스 내 모든 교통수단 반값 할인), Night GA travel card(저녁 7시 이후 스위스 내 모든 교통수단 무료)는 사놓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통신의 경우 swype를 이용했다. 저가 통신사임에도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이며 유럽 내를 여행할 때 로밍을 하루 약 5000원에 이용가능해 추천한다. 일부 지역 통신이 제한되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였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사실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앙 도서관인 톨렉스 도서관이나 현지 학생들의 공부스팟은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공부해 추억을 쌓는 것도 좋다. 시험기간에는 톨렉스 도서관이 굉장히 분비기 때문에 학교 내의 다른 공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교환학생의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레만 호수였다. 같은 플랫과 이웃 플랫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레만 호수에서 수영하고, 호수 옆에 앉아 체스를 두고 바비큐를 해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또, 나의 기숙사 옆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침에 요가메트를 가지고 나가 요가나 간단한 운동을 했다. 로잔 자체에 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운동 위주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PFL UNIL sports center 에 다양한 저렴한 운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드는 것을 추천한다. 세일링 등의 인기 있는 수업은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잘 확인해두면 좋다. 또, 스위스 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양한 하이킹 스팟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friends pass 를 끊어 저렴한 가격에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럽여행의 경우 아이슬란드, 파리, 남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를 다녀왔다.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에 있어 여행 다니기에 좋고, 또, 로잔의 경우 제네바 공항이 약 한시간 거리에 있어 편하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도시 자체는 유럽인 것에 비해 매우 안전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거리가 밤에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특히 공원 등은 밤에는 산책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삶의 여유를 배울 수 있었다. 나를 위해 정성들여 음식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한국의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몰아붙이던 것을 잠시 멈추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수영하고, 낮잠을 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문화적 차이와 프로젝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하루하루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OIA 와 공과대학 국제협력 본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8 월 19 일
지원자* 서명 필수	김경오 김경오